

◀하나님! 나의 하나님▶ 노래자랑 대회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국 노래자랑 대회에 참석했다. 제자중에 다대오가 본선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물론 예상치 못한 일이다. 음악 공부를 할 때는 모짜르트나 베토벤이 좋았던 제자들, 알고보니 다 뺑이었다. 이곳에 와보니 제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노래는 <칠갑산> <남행열차> <아파트> 같은 노래였다.

다대오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무대에 나가 있었다. 세 제자는 안무를 담당했다. 전국 노래자랑이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소박함과 동네 잔치같은 친근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은 그동안 다닌 곳 중에 최고로 편했다. 예수님도 많이 편하셨는지 그 와중에 주무시고 계셨다.

마침내 다대오가 출연했다. 베드로는 어디서 배웠는지 "군발이 춤"을 추고 있었다. 야고보는 "덩달이 춤", 요한은 "니 맘대로하세요"다. 나머지 제자들의 응원이 무색하게 그만 중간에 "땡!" 소리가 울렸다. 청중들의 웃음 소리와 함께 쑥스럽게 퇴장해야했다.

그때 이상 일기현상이 일어났다.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일이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천둥 번개와 함께 그것도 우박이 쏟아져 내렸다. 야외무대가 줄지에 아수라장이 될 판이다. 오래간만의 흥이 깨어질 판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다.

"이 마당에 주무세요?" 예수님은 이 마당이 좋다며 다시 누우셨다. 제자들이 다시 깨웠다. 예수님은 귀찮은 듯 일어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옛날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불 때에 그때도 너희들이 나를 깨웠지?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빌립이 말해봐" 빌립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바다야 잔잔하라!"

예수님은 도로 누우셨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 하늘이 개이고 있었다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빌립이 말했다.

"주님, 전 바다야 잔잔하라고 했는데 왜 하늘이 잔잔해지죠?"

예수님이 가라사대

"따지지 말고 가르치는 대로만 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니?"

전국 노래 자랑 야외 녹화는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더 굳세게 믿게 되었다. "그 와중에도 주무시다니 인간이 아니야" 빌립이 괜히 한 마디 했다가 뒤통수로 날아온 예수님의 장화에 한 대 얻어맞았다. 빌립은 속으로 말했다.

"도사다, 빗나가지도 않아"

◀그뎌 그랬지▶ 학생복 선전

"♪ 이겼다 또 이겼다 승리의 스마트다
선경의 학생복지 스마트 스마트♪"

기껏해야 남보다 바지통을 조금 넓게 하거나 치마를 조금 올려 입는 것으로 멋이 난다고 생각했던 학창시절의 교복, 당시 선경 스마트 학생복, 제일합섬 에리트 학생복, 골덴텍스 학생복은 질 좋은 교복이었습니다.

지금쯤 그때 동창들을 만나 "너 하나도 안 변했구나"는 말을 이제 우리도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삼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5권 50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12월 14일
☎520-9464, 369-5077,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ca.to		

다윗이 왕이 된 이유



다윗은 어려서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양을 칠 때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선 양을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건강한 양, 어린 양, 병든 양으로 나누어 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풀을 발견하면 풀을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갓 돌아난 연한 풀, 보통 풀, 그리고 억센 풀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을 몰고 다니다가

갓 돌아난 연한 풀이 있으면 병든 양에게만 먹였습니다.

보통 풀은 어린 양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억센 풀은 건강한 양에게 먹였습니다.

이렇게 양을 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아! 네가 네 육신의 아버지의 양을 그렇게 잘 돌보는 것을 보니

내 양 이스라엘 백성을 네게 맡겨야겠다.

너를 왕으로 삼을 것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마25:21)

엄마가 딸에게

그릇을 너무 많이
사두지 마라
일년에 한번도
쓰지 않는 그릇이 많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말에는 서점을 가라
거기서 눈빛을 내며
책을 고르는 사람들의
진지함을 느껴라



* 표에 영어사기 어려운 곳은 양역사서 드려사기 바랍니다

주 일 예배

영광송 Gloria "Calvary"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er

웅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리라

* 찬시교독 Hymn 29(시 130편) 23장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 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Children's Church Sunday School

찬양 Hymn 188장

기도 Prayer

성경 읽기 Scripture Reading 고린도전서 13:4-7

성가대 찬양 Choir 찬양

설교 Sermon "진리를 기뻐하는 것" 219장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Hymn 219장

교제 교제 (10) 사랑은 (10)

김성국 목사 김성국 목사

다 같이 다 같이

영차 주일기도 찬양위원 가동찬송 Tea Time
유영찬, 김이재, 김이재, 김원숙, 김원희, 김선영, 이근영, 이재영, 이재용, 이주익

◆ 12월의 예배위원 ◆

(예배를 마친 후 Hall에서 Tea Time를 갖습니다.)

2003년 교회표어 "진정한 기쁨, 진한 사랑" (마 18:4)
부모의 기도하는 자녀
나의 행운 편 해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 전교차역 이후에
특별 자력이 주어집니다
*어린이교회를 다녀 모신후 문정
하셔서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1. 교우소식 <이사>김영구, 양은미 전사. ☎ 478-1922 ☒ 13 Nottingham Pl. Browns Bay
<한국방문> 김원수, 김정순 성도.
<한국귀국> 성도(12월)
<특별히서서 랑보리 가족되심을 환영합니다>
*지상각, 최영순 전사, 성민, 성원 ☎ 533-3168 ☒ 2/11 Malloy Pl. Eastern Beach
2.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일시> 15일(월) 오후 1시, 교회
오늘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은 어떤 한 등잔불 아래서 하시던 어머니
의 기도 덕분에 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기도'는 여전히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
이 됩니다.
3. 환경적분자 모임(예고): 다음주일 성가대 연습 후
4. 유아세례, 세례자 신청바랍니다. *25일 성탄예배에 세례식을 갖습니다
<신앙자곡> *유아세례: 부모께서 세례교인, 3세이하
*세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 6개월동안 교회출석(환자는 특별예외)
5. 남녀성경학교 모임(예고)
*다음 주일은 남녀성경학교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총회)
*남여성교회 분림: 회원의 증가로 남녀 성교회를 각각 4개 성교회로 분림합니다
*1선교회: 56세 이상, 2선교회: 50세-55세.
3선교회: 45세-49세, 4선교회: 44세 이하 (나년도 기준나이)
<회중선출양> (1) 1년 이상 랑보리교회 출석회원 (2) 서리전사 영명 받은 회원
중에서 연장자 우선 회원이 자중적으로 회장(항중적분자는 회원으로만)
*선교회 원회: (1) 선교회원(정기회 혹은 부영기적) (2) 회원전교
회비가 필요할시에는 \$5-\$10사이에서 액정
6. 수요예배 "레위기 강해 시작": 수요일 저녁 7:30
*재미없는 레위기를 재미있는 레위기로 배워 가고프기에 더욱 큰 성령의 조명을
필요로 합니다. 함께 시작하고 함께 마치는 레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7. 2003 성탄축하의 밤 "Christmas with the family": 24일 저녁 5시 교회
*전도하고픈 이웃, 성탄절을 축하히 보내시는 이웃에게 미리 초정의 말씀을 전하
시기 바랍니다

◀ **작년 시인들** ▶ 고향을 - 윤석영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문장은 저기가 거기가
아카시아 흰 꽃이 바람에 날리니
고향에도 저만큼 배꽃새 울겠네

어린 날의 동심, 젊은 여들의
애잔함, 물레속진 채 애태우던 사
랑을 대신하던 노래들은 너무나
그리움에 물들게하여 부르기가 무
렵기도 합니다.
저만 주, 또 시인의 별재가 그도
레마져 가져갈 듯하여 여러편 불
려보았습니다. 좋은 사람의 떠남은
가슴 환전에 구멍이든 듯합니다.